

청소년들이 읽을만한 책

출판협회 선정 '이 달의 청소년도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가 선정하는 '이 달의 청소년도서' 92년 10·11월분으로 다음 11종(11책)의 도서가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철학(2종) 문학(6종) 과학(3종).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총 1천 1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정도서 1종당 약 300부씩을 구입, 전국 각 지방의 공공도서관 132곳을 비롯, 청소년 선도기관·소년원·지방문화원 등 300곳에 기증했다.

만남

한무숙 지음



지난 86년 발표된 장편 소설로 다산 정약용과 그의 조카 정하상을 축으로 삼아 한국 천주교 초창기 신자들의 순교와 박해 속의 삶을 다룬 작품. 한국 근대사에서 학문과 사상을 집대성한 걸출한 학자 정약용의 천주교신자로서의 삶, 그리고 자생교회에 성직자를 영입하는 운동을 벌이다 순교해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조카 정하상의 생애가 과연 어떤 갈등과 성취를 오갔는가를 보여주는 이 소설은, 작가의 40여년 문학의 범주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을유문화사 / A5신 / 478면 / 7000원

石吾 李東寧 평전

이현희 지음



현재 성신여대교수로 이동녕사상 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저자가, 70평생을 광복투쟁에 바친 이동녕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 논문 등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책으로, 일반인들이 읽기 쉽도록 구성한 것이다. 천안에서 태어나 중국 기강에서 타계하실 때까지 일관되게 광복운동의 선두에서 굽힘 없는 삶을 산 석오 이동녕의 성장기를 비롯해 독립협회 조직과 「제국신문」에서의 논객 활동 등을 내용으로 한다.

동방도서 / A5신 / 340면 / 5500원

어머니에게 사랑을

생 텍취베리 지음 / 김진욱 옮김



「어린 왕자」 「야간비행」 등의 작품으로 너무도 유명한 작가가 30여년간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모아 묶은 책. 어머니에게 띄운 편지 84통과 여동생과 매제에게 보낸 4통의 편지 등 모두 88통의 편지를 연대순으로 수록했는데,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글에서부터 가혹한 역사의 현실 속에서 보낸 편지에 이르기까지 생 텍취베리의 육성을 들려준다.

서연 / A5신 / 236면 / 4000원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

예반 지음 / 남주 옮김



이 책은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작가는 평범한 회사원. 항공회사를 다니며 지내던 작가는 어느날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여행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책이 그 글을 엮은 것이다. 작가는 책머리에 "누군가 특별한 이와 만남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을 위하여"라고 적고 있다.

대흥 / B6 / 80면 / 2500원

그래서 나는 실험실 불을 끌 수 없었다

김진의 외 지음



'2천년대 한국을 짊어진 과학엘리트 12인의 삶과 보람'을 주제로 한 이 책은, 지난 91년 한해동안 월간 「신동아」에 실렸던 소장과학자들의 신상명세서를 모은 것. 작은 자서전으로 읽히는데, 독자는 이 책을 통해 과학자들의 과학관과 현재 그들이 몰두하고 있는 연구, 그리고 한국 과학계의 현실과 미래상을 파악할 수 있다. 물리학적·수학적·항공우주공학계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수한 우리 과학자들의 유학시절·실패담·의지를 엿보게 하는 책.

동아일보사 / A5신 / 312면 / 5000원

성난 지구

아이작 아시모프 외 지음 / 이동진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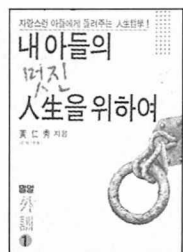
물리학자이자 소설가로 각광받고 있는 아시모프와 역시 소설과 지구문제에 관한 저술로 유명한 프레데릭 폴의 공저. 지구 가열화현상과 산성비 등의 원인으로 피폐해져가는 지구의 현재를 평이한 용어를 써 설명하고, 그런 위협의 절실함을 독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로 피폐해져가는 지구의 현재를 평이한 용어를 써 설명하고, 그런 위협의 절실함을 독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삼신각 / A5신 / 432면 / 5500원

내 아들의 멋진 인생을 위하여

황인수 지음



육사 12기로 육군사관학교 교장 역임 후 예편한 현 일본 경음의숙교수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아들 재웅에게 보낸 1백통의 편지를 모아 한데 묶은 책. 뚜렷한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스스로의 갈 길을 결정하며, 실컷 공부하고 때론 놀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등등의 도움말을 담고 있는 이 책의 글속에는, 아버지로서 형으로서 선배로서 들려주는 따뜻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밀알 / A5신 / 324면 / 4300원

범구경

조현숙 옮김



「중국철학사 방법론」 「노자 도덕경」을 비롯한 10여권의 저서를 번역한 역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이 책은 인도의 범구가 서술한 경전으로 원본은 모두 2권인 「범구경」을 풀어쓴 「The Dhammapada: The Sayings of the Buddha」의 번역본.

서광사 / A5 / 180면 / 6000원

나에게 이르는 길

밀드레드 뉴먼 외 지음 / 이영희 옮김



현직 정신분석학자인 부부 뉴먼과 버코위츠 그리고 자유기고가인 진 오웬이 공저한 이 책은, 모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내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 것.

문답형식을 취해 사람이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감정의 자유로운 선택과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일러준다.

대성 / B6 / 102면 / 3000원

흑치

채희문 지음



87년 중편 「철탑」을 계간지 「세계의 문학」에 발표해 등단한 작가의 첫 장편소설. 검은 치아를 가리키는 소설의 제목처럼 순박하게 욕심 없이 살아가면서도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하층민들을, 충신이지만 왕의 미움을 샀던 검은 치아를 가진 무사에 비유한 이 소설은, 그들의 의지와 좌절 그리고 사랑과 분노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작품.

문예출판사 / A5신 / 288면 / 4500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태양계

이향순 지음



끝없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우주(태양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조망한 교양과학도서. 전문적인 서술을 되도록 피하고 있어 쉽게 읽히는 이 책은, 모두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은하, 그리고 태양계'와 마지막장 '우주의 시작과 끝, 빅뱅과 블랙홀' 사이에 태양·수성·금성·화성 등 9개의 행성과 달·지구·혜성·소행성을 독립된 장에 담았다.

현암사 / A5신 / 184면 / 5500원